제 1 교시

2022학년도 수능대비 Replay 문제지 2회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안지에 답을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 봄바람 부는 흰 꽃 들녘에 시름을 벗고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말랑말랑국어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수(居水)에 이러커든 거산(居山)이라 우연(偶然)ᄒᆞ랴
산방(山房)의 추만(秋晩)커늘 유회(幽懷)를 둘 ᄃᆡ 업서
[A] 운길산(雲吉山) 돌길히 막ᄃᆡ 집고 쉬여 올나
임의소요(任意逍遙)*ᄒᆞ며 원학(猿鶴)을 벗을 삼아
교송(喬松)을 비기여 사우(四隅)*로 도라 보니
천공(天工)이 공교(工巧)ᄒᆞ야 묏빗출 쑴이는가
흰구ᄅᆞᆷ 말근 ᄂᆡ는 편편(片片)이 ᄯᅥ여 나라
노푸락 나지락 봉봉곡곡(峯峯谷谷)이 면면(面面)에 버럿ᄊᆡ든
서리친 신남기 봄ᄭᅩᆺ도곤 불거시니
[B] 금수병풍(錦繡屛風)을 첩첩(疊疊)이 둘너는 ᄃᆞᆺ
천태만상(千態萬象)이 참람(僭濫)*ᄒᆞ야 보이ᄂᆞ다
힘 세이 다토면 내 분에 올가마는
금(禁)ᄒᆞ리 업술ᄉᆡ 나도 두고 즐기노라
ᄒᆞ물며 남산(南山) ᄂᆞ린 긋히 오곡(五穀)을 가초 심거
[C] 먹고 못 남아도 긋지나 아니ᄒᆞ면
내 집의 내 밥이 그 맛시 엇더ᄒᆞ뇨
채산조수(採山釣水)ᄒᆞ니 수륙품(水陸品)도 잠깐 ᄀᆞᆺ다*
[D] 감지봉양(甘旨奉養)*을 족(足)다사 홀가마는
오조함정(烏鳥含情)*을 벱고야 말넛노라
사정(私情)이 이러ᄒᆞ야 아직 물러나와신돌
망극(罔極)ᄒᆞᆫ 성은(聖恩)을 어ᄂᆡ 각(刻)애 이질넌고
[E] 견마미성(犬馬微誠)*은 백수(白首)에야 더옥 깁다
시시(時時)로 머리 드러 북신(北辰)을 ᄇᆞ라보니
ᄂᆞᆷ 모ᄅᆞᄂᆞᆫ 눈물이 두 사ᄆᆡ예 다 젓ᄂᆞ다

- 박인로, 「사제곡(莎堤曲)」 -

* 임의소요(任意逍遙): 마음대로 거닐며 바람을 쏘임.
* 사우(四隅): 사방.
* 참람(僭濫): 제 분수를 넘어 방자스러움.
* ᄀᆞᆺ다: 갖추다.
* 감지봉양(甘旨奉養): 맛나는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함.
* 오조함정(烏鳥含情): 까마귀가 먹은 마음.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 견마미성(犬馬微誠): 개와 말이 충성스레 사람을 섬기듯이 신하가 임금님을 섬기려는 작은 정성.

(나)

농암(聾巖)에 올아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ㅣ로다
인사(人事)이 변(變)ᄒᆞᆫ둘 산천(山川)이ᄯᅳᆫ 가실가
암전(巖前)에 모수(某水) 모구(某丘)*이 어제 본 ᄃᆞᆺ ᄒᆞ예라

- 이현보, 「농암가(聾巖歌)」 -

* 유명(猶明): 오히려 밝아짐.
* 모수(某水) 모구(某丘): 아무개 물과 아무개 언덕.

(다)

그러다가 금년 가을에 상인(上人)*이 산에서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를 보고는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붙들어 두었는데, 그때 상인이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보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초당을 상죽(霜竹)이라고 이름하고는 육우(六又) 김비판(金祕判)에게 청하여 큰 글자를 써서 현판으로 걸었다. 앞으로 상죽에 대한 시가(詩歌)를 천신(薦紳)들 사이에서 구하려고 하니, 그대가 기문(記文)을 써주면 좋겠다."

내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긴 하였지만, 나를 초목에 비유한다면 저력(樗櫟)이나 포류(蒲柳)일 따름이니, 어떻게 감히 우리 상인의 초당에 기문을 쓸 수가 있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상인이 일단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았고 보면, 내가 또 어떻게 들은 것을 가지고 고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대저 대나무도 하나의 식물이다.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면 급격하게 변해서 가지가 꺾여 부러지고 낙엽 져 떨어져서 더 이상 생기가 없어지고 만다.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우고 있는 식물 모두가 이러한데도 오직 대나무만은 가지도 여전하고 잎도 여전한 가운데 홀로 우뚝 서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예로부터 운치 있는 사람들과 절개 있는 선비들 거의 대부분이 대나무를 사랑하였으며, 심지어는 차군(此君)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아, 사람의 속성을 살펴보건대, 눈으로 색(色)을 취하고 코로 냄새를 취하고 귀로 소리를 취하고 입으로 맛을 취하고 팔과 다리로 편안함을 취하는 과정에서, 저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들이 어찌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는 정도로만 그칠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 이에 대해 피할 줄 아는 자가 드물기만 하다.

상인은 불자(佛者)이다. 따라서 소위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일념(一念)이 동요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초당을 상죽(霜竹)이라고 명명하였고 보면, 이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일 뿐만이 아니요, 대개는 기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 이숭인, 「상죽헌기(霜竹軒記)」 -

* 상인(上人): 지혜와 덕을 갖추어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고승.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색채를 대비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족감이 드러나 있다.
② (나)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③ (가)와 달리 (나)에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이 드러나 있다.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이 드러나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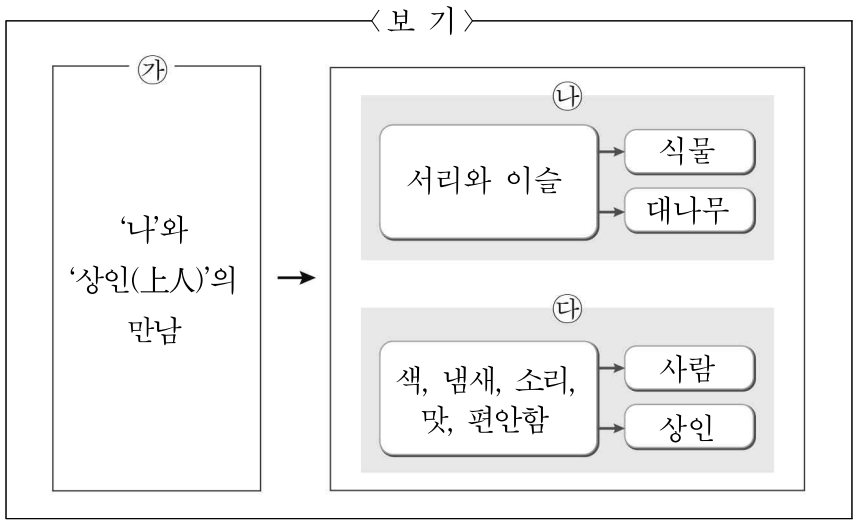
〈보 기〉

「사제곡」은 박인로가 이덕형을 화자로 하여 그가 향촌인 '사제'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작품화한 것이다. 박인로의 시가에서 강호는 향촌으로 돌아온 사족(士族)이 은거하는 공간인 동시에, 그들이 현실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또한 성리학적 유자(儒者)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충과 효를 실천하는 공간이다.

① [A]는 화자가 '사제'를 유자적 자세를 다짐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B]는 화자가 '사제'에 은거하여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C]는 화자가 '사제'에서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D]는 화자가 '사제'에서 부모를 봉양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E]는 화자가 '사제'에서도 충을 실천하고자 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① '나'는 ㉮에서 '나'를 대하는 '상인'의 태도를 생각해 '상인'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② '나'는 ㉯의 '대나무'가 '서리와 이슬'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나'는 ㉰의 '상인'의 모습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에게 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의 '대나무'가 ㉰의 '상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⑤ '나'는 ㉯의 '서리'가 '식물'을 해치는 것보다 ㉰의 '사람'이 '편안함'을 취하면서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이 그립다는 것이지? 작자는 나로서는 생전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빙빙 돌아다니며 사는 놈인데 그리고 보니 작자의 저 광증에 가까운 생활 태도는 무전여행자의 그것 아니면 촌놈이 서울에 와 보니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해서 어쩔 줄을 몰라, 아니 **무턱대고 우쭐대고 싶은 저 촌뜨기 의식에 가득 차**서 괜히 심각한 체해 보았다가 시시하게 웃어 보았다가 술 사달라고 조르고 사랑이 어쩌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이다. 고향이 그립다는 것이지? 그러나 고향이 그리운 것 같지도 않다. 작자의 고향에는 자기의 어머니와 누이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작자는 그들에게 대해서 별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이다. 나는 작자에게 보낸 그의 어머니의 편지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그처럼 다정하고 착하고 그리고 내가 그 편지 속에서 받은 느낌을 상상해 보건대 그처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어머니가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성모 마리아의 하얀 석상을 볼 때 받는 느낌 같았다고나 할까, 요컨대 **작자에게는 분에 넘치기 짝이 없이 훌륭한 어머니**인 것이다.

'아들아, 먼 곳에 너를 보내 놓고 마음 한시도 놓지 못하고 있다. 하느님께 기도 드리면 내 아들이 아무리 먼 곳에 가 있더라도 심신 평안하다 하여 지난 주일부터는 읍내에 있는 성당에 다니기로 하였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

내가 읽은 그의 어머니의 편지 한 구절이다.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 작자는, 우리 마을에서 성당이 있는 읍내까지는 꼬박 30리 길인데… 왕복 60리, … 미친 짓하고 계셔, 라고 투덜대더니 괜히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편지를 돌려주자 북북 찢어서 팽개쳐 버리는 것이었다. 그처럼 착한 어머니께 '미친'이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그야말로 미친 바보, 멍텅구리, 촌놈, 얼치기, 치한.

(나)

누이는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나와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려 들지 않았었다. 우리는 누이가 지니고 왔던 **작은 보따리**를 헤쳐 보았다. 그러나 헌옷 몇 벌과 두어 가지의 화장 도구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걸로써는 누이에게 침묵을 만들어 준 이 년의 내용을 측

량해 볼 길이 없었다. 누이의 침묵은 무엇엔가의 항거의 표시였다. 우리를 향한 항거였을까, 도시를 향한 항거였을까. [A]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높은 목소리로 질책하는 방법이 침묵의 질책보다 더 서툴렀다는 것을 결국 도시에서 배워 왔단 말인가?

반대로, 도시를 향한 항거라면 — 아마 틀림없이 이것인 모양이었는데 — 그렇다면 누이의 저 향수와 고독을 발산하는 눈빛, 사람들이 ⓐ두고 온 것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등불 같은 저 눈빛을 우리는 무엇으로써 설명해야 할 것인가?

누이가 돌아오고, 누이가 도시에서의 기억을 망각하려고 애쓰는 듯한 침묵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마 누이가 도시에서 묻혀온 고독이 병균처럼 우리 자신들조차 침식시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황혼과 이 해풍. 그들이 우리에게 알기를 강요하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미소를 침묵으로 바꾸어 놓는, 요컨대 우리가 만족해 있던 것을 그 반대로 치환시켜 버리는 세계였던 것인가. 누이는 적어도 우리가 보낼 때에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그런데 침묵의 훈련만을 받고 돌아오다니.

어제 저녁,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시로 되어 있는 밀국수를 끓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말씨와 정성어린 손짓으로 누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도시에서 무슨 일을 했던가, 결국 곤란을 겪었던가, 무엇이 재미있었던가, 남자를 사귀었던가, 그렇다면 어떤 남자였던가, 고 얘기해 주기를 간청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짐작컨대 누이의 쓰라린 추억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누이는 어머니를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석유 등잔불의 펄럭이는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더욱 쓸쓸해 보이게 했다.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누이는 말했다. 어머니도 소리 없이 울었다. 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새삼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라고 누이는 말하고 싶었던 거다. 하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무서운 사건이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다음날은 **희생자들**이 작은 조각에 몸을 기대고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며 부유하는** 것이다.

강물이 빠르게 밀려오고 금빛 하늘이 점점 회색으로 변해 가는 이 시각에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 주는 자연 속에서 나는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 버리**게 할 생각이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이를 위해서였다. 이 넌 동안을 씻어 버리고 다시 이 짠 냄새만을 싣고 오는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저 도시가 침범해 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고장을 지키기에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원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 의지의 신화들을 배운다는 것, 우는 것을 배운다는 것, 침묵을 배운다는 것, 그것만이 인간인 것이냐?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라고 나는 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

5.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나'는 '작자'를 '무턱대고 우쭐대고 싶은 저 촌뜨기 의식에 가득 차'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작자'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나'는 '작자'의 어머니를 '작자에게는 분에 넘치기 짝이 없이 훌륭한 어머니'로 표현하여 '작자'와 그 어머니에 대해 대조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③ (가)에서 '나'는 '작자'가 어머니의 편지를 찢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을 어머니의 헌신적인 태도에 대한 감동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④ (나)에서 '나'는 '누이'의 '울음'을,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며 부유하는' '희생자들'과 연결지어 이해하고 있다.
⑤ (나)에서 '누이'를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누이'가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 버리'고 과거와 같은 존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6. '[선생님의 설명]'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의 설명〕

(가)와 (나)는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장들의 일부로, 각각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가)의 '나'는, 고향에 어머니와 누이를 두고 서울로 와 살고 있는 '작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 (나)의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2년간 살다 귀향한 '누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가)와 (나)는 '작자'와 '누이', 즉 고향을 떠나 도시 공간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인물을 다룸으로써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와 (나)는 독립된 장으로 서로 구별되어 있음에도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단일 제목 하에서 통합된 의미를 구현하게 되지요. 이 작품을 읽으며 독자는, (가)에서 '나'의 시각으로 서술되는 '작자'의 모습을 통해 (나)의 〔 ㉠ 〕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① '누이'가 가져온 '작은 보따리'의 가치
② '누이'가 도시에서 겪었을 경험의 성격
③ '누이'가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게 된 계기
④ '나'와 '어머니'가 '누이'를 도시로 보낸 까닭
⑤ '어머니'가 '누이'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7.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독백적 질문이 반복되며 내적인 탐색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② 공간적 배경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
③ 계절적 이미지를 묘사하여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④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인물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8. ⓐ~ⓔ와 관련하여 (나)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를 도시에 대해 미련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② '나'는 도시를 ⓑ로 보고 자신의 고향과는 이질적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어머니'는 ⓒ를 통해 '누이'가 도시에서의 경험을 털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나'는 ⓓ의 발화에 이어지는 '울음'에 '누이'의 미안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나'는 고향의 속성들을 ⓔ와 같이 열거하며 도시의 허영적 속성을 일깨우고 있다.

〔9~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욕망은 무엇에 부족함을 느껴 이를 탐하는 마음이다. 춘추전국시대를 살았던 제자백가들에게 인간의 욕망은 커다란 화두였다. 그들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전쟁을 일삼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탐구하였다.

먼저, 맹자는 인간의 욕망이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욕망이 과도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과 투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살면서 욕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욕망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에, 욕망을 제어하여 선한 본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강조한 것이 '과욕(寡慾)'과 '호연지기(浩然之氣)'이다. 과욕은 욕망을 절제하라는 의미로, 마음의 수양을 통해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호연지기란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상으로,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해야만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맹자보다 후대의 인물인 순자는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가 심하며 눈과 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만으로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두면 한정된 재화를 두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어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므로, 왕이 '예(禮)'를 정하여 백성들의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예는 악한 인간성을 교화하고 개조하는 방법이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자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해 예를 세워 인위적으로 선(善)이 발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는 맹자의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욕주의라 할 수 있다.

(나)

유교에서 '성인'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순자는 누구나 ㉠ '심(心)'을 수양하면 이러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수양론에는 인간이 이상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 경주(傾注)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한다.

순자에 따르면 심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道)'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이다. 즉 심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은 불안정하여 외부 사물에 방해를 받아서 ⓑ 편견(偏見)에 빠지기 쉽다. 인간의 심이 편견에 빠지면 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순자는 이렇게 심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 '폐(蔽)'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심이 폐의 상태가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어긋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순자는 인간이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심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허(虛)', '일(壹)', '정(靜)'을 제시하고 있다. '허'는 심이 과거의 지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심은 기존의 지식에 영향을 받아 편견이 생기고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심이 허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 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일'은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심이 일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물을 서로 ⓒ 혼동(混同)하지 않고 도에 집중하게 되어 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은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심은 항상 움직이면서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렇게 되면 심은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심이 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고요함을 유지하여 도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심은 '허일정'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도를 ⓓ 인식(認識)하여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순자는 이와 같은 이상적 상태를 '대청명(大淸明)'이라 부르고 이에 도달한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양에 ⓔ 정진(精進)할 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욕망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욕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그 입장들을 비교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절차를 특정 사상가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상황에 대한 순자의 견해를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욕망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욕망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욕'과 '호연지기'를 통해 인간의 선한 본성이 확충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② '예'가 '과욕'과 '호연지기'보다는 인간이 삶 속에서 실천하기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③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욕망을 모두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④ 욕망 조절을 개인의 수양에만 맡기지 않고, 욕망을 외적 규범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⑤ 무엇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함을 직시하고, 이것의 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11.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 ㉡이 되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② ㉠은 수양의 과정을 통해 ㉡에 도달할 수 있다.
③ ㉠, ㉡ 모두 도를 인식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
④ ㉠은 ㉡과 달리 외적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⑤ ㉡은 ㉠과 달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12. <보기>를 (가)의 **맹자**의 입장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소문으로 A 음식점은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A 음식점 주인이 소문의 진상 파악을 경찰에 의뢰했고, 이를 조사한 결과 경쟁 관계에 있던 B 음식점 주인이 A 음식점에 빼앗긴 손님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① A 음식점의 음식에서 이물질 발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손님들의 도덕성이 의심되는군.
② B 음식점 주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은 이기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겠군.
③ A 음식점 주인은 B 음식점 주인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군.
④ A 음식점을 시기하는 마음이 B 음식점 주인에게 드는 것은 인간의 나쁜 본성 때문이니 의로운 일을 하면서 변화되어야겠군.
⑤ B 음식점 주인이 경쟁 관계인 A 음식점의 수익까지 욕심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수양을 통해 절제해야겠군.

13. (나)의 '순자'와 <보기>의 '장자'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자는 '도(道)'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허일정을 심(心)을 비우고, 심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며, 고요함의 상태에서 외적 사물에 동요되지 않고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처럼 장자는 날마다 덜어냄을 통해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순자와 장자는 모두 '허일정'을 '심'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군.
② 순자와 장자는 모두 '도'에 이르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고 있군.
③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순자와 장자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군.
④ 순자는 욕망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장자는 욕망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군.
⑤ 순자와 장자는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채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1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힘이나 정신을 한곳에만 기울임.
② ⓑ: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③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④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⑤ ⓔ: 여럿 가운데서 앞서 나아감.

〔15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규직 근로자에서부터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까지 근로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엄연한 근로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 명시(明示)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속은 구두로 하기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 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임금과 임금을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근로 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다. 또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1주간의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50%를 ㉡ 가산(加算)하여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정해진 근로 일수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1주간의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유급 주휴일,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 교부(交附)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노무직 근로자이거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100%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일, 주,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고, 현물이나 상품권은 안 되며,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임금 체불이 된다. 대표적인 임금 체불 사례를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약속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였으나 갑자기 일이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 그 이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연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 청구(請求)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의 ㉤ 과실(過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기분이 나쁠 정도의 폭언이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체적인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므로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유급 주휴일 : 1주간의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일하였을 때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
* 연차 유급 휴가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임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② 근로 계약이란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③ 1주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④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16. <보기>는 윗글을 읽은 사회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부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부장 : 근로자와 근로 계약에 대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원 1 :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부원 2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원 3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업주에게 체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원 4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단순노무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원 5 : 임금이 체불된 경우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① 부원 1의 질문
② 부원 2의 질문
③ 부원 3의 질문
④ 부원 4의 질문
⑤ 부원 5의 질문

〔17~ 18〕 〈보기〉는 직원이 10여 명인 ◇◇ 식당에 근무하게 된 '박ㅇㅇ' 군의 근로 계약서이다.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연소 근로자 근로 계약서

김△△(이하 "사업주"라 함)와 박○○(이하 "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20일까지
2. 근무 장소 : ◇◇ 식당 홀
3. 업무의 내용 : 홀 서빙 및 청소
4. 근로 시간/휴게 시간 : 16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 매주 토, 일요일 ····· ㉯
6. 임금
   - 시간급 : 7,530원 ····· ㉰
   - 임금 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7.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 ····· ㉱
8. 사회보험 가입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2018년 4월 25일

(사업주) 사업체명 : ◇◇ 식당(전화 : xxx-xxxx-xxxx)
주 소 : □□시 □□구 □□로 48
대표자 : 김△△ (서명)
(근로자) 주 소 : □□시 □□구 □□로 28
연락처 : xxx-xxxx-xxxx
성 명 : 박○○ (서명)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에는 3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② ㉯의 내용대로 1주일을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근무하였다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③ ㉰에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명시해야 한다.
④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일 경우 ㉱처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에서 내용의 확인 및 서명은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18. 다음의 '박○○' 군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박ㅇㅇ 군은 5월 둘째 주 월요일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그 주 토요일에는 일손이 모자라 근무하였다. 그 후 서빙 중 본인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다쳤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친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박ㅇㅇ 군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①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가산된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 기간 중에 해고당한 근로자이므로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업무 수행 중이지만 본인 과실로 다쳤으므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④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일에 일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므로 휴업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9.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물체를 환히 꿰뚫어 봄
② ㉡ : 본래의 수에 더하여 셈함
③ ㉢ : 서류나 물건을 내어 줌
④ ㉣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
⑤ ㉤ :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배는 타관 가서 오지 않고 산비탈 **외따른 집**에 **엄매**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 뒤로는 어늬 산골짜기에서 소를 잡어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같이 쿵쿵거리며 ㉠<u>다닌다</u>

날기멍석을 져간다는 닭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뒷산 어늬메도 조마구네 나라가 있어서 **오줌 누러** 깨는 재밤* 머리맡의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 나는 이불 속에 자즈러붙어 숨도 쉬지 못한다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고무**가 고개 너머 큰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지의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같은 때 나는 아릇목의 삿귀를 들고 쇠든밤*을 내여 다람쥐처럼 밝어먹고 은행여름을 인두불에 구워도 먹고 그러다는 이불 우에서 광대넘이를 뒤이고* 또 누워 굴면서 엄매에게 웃목에 두른

평풍의 새빨간 천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무더러는 밝는 날 멀리는 못 난다는 뫼추라기를 잡어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내일같이 명절날인 밤은 부엌에 쩨듯하니 불이 밝고 솥뚜껑이 놀으며 **구수한 내음새 곰국**이 무르끓고 방안에서는 일가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펴며 조개송편에 달송편에 죈두기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팥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손이 되여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섣달에 냅일날이 들어서 냅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쌔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냅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녀기며 엄매와 나는 앙궁 우에 떡돌 우에 곱새담 우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으로 냅일눈 약눈을 ㉡받는다

이 눈세기물을 냅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두**고는 해를 묵여가며 고뿔이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갑피기를 앓어도 먹을 물이다

—백석, 「고야(古夜)」-

*조마구: 옛 설화에 나오는 키가 매우 작다는 심술궂은 난쟁이를 의미함.
*재밤: '재밤중'의 준말. '한밤중'의 평안 방언. *쇠든밤: 말라서 생기가 없어진 밤.
*광대넘이를 뒤이고: 물구나무를 섰다 뒤집으며 노는 모습을 의미함.
*냅일눈: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 등을 여러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인 납일에 내리는 눈. 이 눈을 받아 녹인 물은 약용으로 썼음.

(나)

겨울산에 가면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 있다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 보고 있다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도타운 귀,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거무스레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신열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잘릴 때 쏟은 톱밥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그 옆으로는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것들이
뿌리박힌 곳에서 ㉤ 자라고 있다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다이테가 있다.

- 나희덕, 「겨울산에 가면」-

20.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비유를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밤'에 대한 화자의 기억을 병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린 시절의 화자에게 '밤'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겁이 났던 시간이자 전통적 풍속을 따르며 가족 공동체와 정겹게 함께한 풍요롭고 평온한 시간이었는데, 행위의 나열과 선명한 감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기억은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짐작하게 한다.

① 1연의 밤은 '외따른 집'에서 '엄매'와 '단둘이서' 지내며 무서움을 느꼈던 시간으로, 그 기억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② 2연의 밤은 '오줌 누러' 잠이 깨었는데 '조마구'의 '새까만 눈알'이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두려움을 느꼈던 시간으로, 그 기억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③ 3연의 밤은 '엄매'와 '시집갈' '막내고무'가 '바느질'을 할 때 그 옆에서 놀면서 화자가 가족 공동체와 보낸 정겨운 시간으로, 그 기억은 행위의 나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④ 4연의 밤은 '명절날' '곰국'의 '구수한 내음새'가 나고 화자가 '설탕 든 콩가루 소를 먹'는 등 먹을거리로 풍요로운 시간으로, 그 기억은 후각적 이미지와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⑤ 5연의 밤은 '할미귀신'을 '든든히' 여기고 '눈'을 받아 '진상항아리' 에 '채워두'는 전통적 풍속을 따르던 평온한 시간으로, 그 기억은 행위의 나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22.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정 갈래의 현재 시제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닌 가상적 현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시적 효과를 유발한다. 즉, 과거 혹은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의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되면, 독자는 화자의 주관적 인상과 인식, 그리고 감정과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된다.

① (가)의 ㉠은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이 다니는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유발한다.
② (가)의 ㉡은 정한 마음으로 냅일눈을 받는 화자의 행위와 주관적 감정에 집중하게 한다.
③ (나)의 ㉢은 밑둥만 남아 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에 대한 인상을 물리적 시간인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은 나이테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가상적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⑤ (나)의 ㉤은 밑둥 옆에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시적 효과를 얻고 있다.

23. (나)의 나이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모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② 자식에게 어머니의 편안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이다.
③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단절시키는 소재이다.
④ 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는 자식의 강인함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⑤ 성장한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무상감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24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화소설(寓話小說)은 동물을 인격화하여 풍자를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작품을 말한다. 동물들의 언행을 통해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인간 세계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서사 양식이다. 우화소설의 주요 유형으로는 소송 사건을 다루는 송사형 소설과 시비를 가리는 쟁론형 소설 등이 있다.

우화소설은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소설의 갈등을 부각하는 서사적 장치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동물의 외형이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물을 형상화하며, 구어나 비속어 또는 기지나 재치 있는 언술을 활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화소설은 이러한 소설적 형상화 방식을 통해 인간 세태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서대주전」은 쥐를 의인화한 대표적 우화소설이다. 서대주가 타남주가 모아 놓은 밤을 몰래 훔치자 타남주가 서대주를 관가에 고소하는 사건을 통해 당대 관리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별주부전」은 용왕이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자라를 시켜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오는 사건을 통해 인간의 잘못된 본성과 지배층의 횡포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작품들과 같이 우화소설은 동물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나 봉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한다. 즉 우화소설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어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 의식과 도덕적 교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회상을 모색하려는 문학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사령이 데리고 가 옥졸(獄卒)에게 넘겨주자, 옥에 끌어넣어 단단히 가두고 돈을 내라 졸라댔다. 서대주는 갖고 온 물건을 옥의 수졸(守卒)에게 많이 주자, 수졸들이 대단히 좋아하며 큰 칼을 풀어 주어 편히 쉬게 하고, 하인과 같이 돌봐 주는 것이었으니, 돈이 마르면 귀(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대주가 곤하여 누워 있으니, 대서(大鼠)는 그 손을 주무르고, 중서(中鼠)는 그 다리를 안마하고 동서(童鼠)는 그 허리를 밟으며 대주의 심란스러운 바를 위로하며, 대추, 밤 등속의 것을 주어 요기시키면서 밤을 새우니, 이것을 보는 자가 배를 움켜잡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 날에 주쉬가 두 자리 크게 설치하고, 둘을 잡아들여 동서(東西)로 나누어 꿇어앉히고, 책상을 치며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네 이놈, 조그마한 것이 잔악하기도 심하게 남의 물건을 하루 저녁에 다 도적질해 갔다 하는데, 그게 정말이냐? 바른대로 말할 것이지, 다소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당장에 엄한 형벌로 무겁게 치죄를 할 것이다."

라고 형리가 고성으로 소리치니, 그 소리가 우렁차, 담보가 큰 자라 하더라도 놀래어 겁을 낼 지경이었는데, 더군다나 죄가 있는 약한 자로서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서대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는 벌벌 떨리는 것이었으나, 겉으로는 일상과 같이 태연히 정신을 진정하고 안색을 변치 않고서 우러러보며 대소(大笑)하고,

(중략)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이와 같은 흉년에 한 홉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빌어먹는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아뢰겠나이다. 매년 봄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밤낮으로 가을걷이를 한 후에는,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인,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쫓아내어 흩어지게 하였는데, 또 봄여름이면 이와 같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이들을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여,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사냥하러 나갔을 때, 소토산 왼편의 용강산(龍岡山)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뢰한 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훈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엎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A]

서대주가 옷섶을 고쳐 여미며 단정히 꿇어앉았는데,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면서 두 손을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형세가 본디부터 그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결박한 것을 풀고 씌운 큰 칼을 벗겨 주고는, 술을 내려 주어 놀랜 바를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 타남주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세 대를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니, 서대주가 거듭거듭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다.

서대주는 후에 수백의 여자를 취(娶)하고 자손이 번성하여 주(州), 군(郡), 현(縣), 읍(邑), 항려(巷閭), 향곡(鄕谷)에 살지 않음이 없고, 그들은 다 도적질로 생활을 하매, 세상의 아동, 적은 것들, 부녀 또는 가마 메는 졸부 등이 만나기만 하면 죽여 버리니, 이것은 즉 서대주가 사람을 해친 마음에 대한 앙갚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 작자 미상, 「서대주전(鼠大州傳)」 -

(다) 이때에 뜰아래 섰던 군사들이 일시에 달려들려 하니 토끼 무단히 허욕을 내어 자라를 쫓아왔다가 수국원혼이 되게 되니 이는 모다 자취(自取)한 화라,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한하리오. 세상에 턱없이 명리(名利)를 탐하는 자는 가히 이것을 보아 징계할지로다.

이때에 토끼 이 말을 들으며 청천벽력이 머리를 깨치는 듯 정신이 아득하여 생각하되 '내 부질없이 영화부귀를 탐내어 고향을 버리고 오매 어찌 이 외의 변이 없을소냐. 이제 날개가 있어도 능히 위로 날지 못할 것이오, 또 축지(縮地)하는 술법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때를 벗어나지 못하리니 어찌하리오.' 또 생각하되, '옛말에 이르기를 죽을 때에 빠진 후에 산다 하였으니 어찌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 갈 방책을 헤아리지 아니하리오.' 하더니 문득 한 꾀를 생각하고 이에 얼굴빛을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머리를 들어 전상을 우러러보며 가로되,

"소토(小兎) 비록 죽을지라도 한 말씀 아뢰리다. 대왕은 천승의 임금이시오 소토는 산중의 조그마한 짐승이라 만일 소토의 간으로 대왕의 환후 십분 나으실진대 소토 어찌 감히 사양하오며 또 소토 죽은 후에 후장하오며 심지어 사당까지 세워 주리라 하옵시니 이 은혜는 하늘과 같이 크신지라, 소토 죽어도 한이 없사오나 다만 애달픈 바는 소토는 비록 짐승이오나 심상한 짐승과 다르와 본디 방성정기를 타고 세상에 내려와 날마다 아침이면 옥같은 이슬을 받아 마시며 주야로 기화요초(琪花瑤草)를 뜯어 먹으매 그 간이 진실로 영약이 되는지라. 이러하므로 세상 사람이 모두 알고 매양 소토를 만난즉 간을 달라하와 보챔이 심하옵기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와 염통과 함께 끄집어 청산녹수 맑은 물에 여러 번 씻사와 고봉준령 깊은 곳에 감추어 두옵고 다니옵다가 우연히 자라를 만나 왔사오니 만일 대왕의 환후 이러하온 줄 알았던들 어찌 가져오지 아니 하였으리오."

[B]

하며 또 자라를 꾸짖어 가로되,

"네 임금을 위하는 정성이 있을진대 어이 이러한 사정을 일언반사도 날 보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뇨."

하거늘 용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네 진실로 간사한 놈이로다. 천지간에 온갖 짐승이 어이 간을 출입할 이치가 있으리오. 네 얕은 꾀로 과인을 속여 살기를 도모하니 과인이 어이 근리(近理)치 아닌 말에 속으리오. 네 과인을 기만한 죄 더욱 큰지라. 빨리 너의 간을 내어 일변 과인의 병을 고치며 일변 과인을 속이는 죄를 다스리리라."

토끼 이 말을 듣고 또한 어이없고 정신이 산란하며 간장이 없고 가슴이 막히어 심중에 생각하되 속절없이 죽으리로다 하다가 다시 웃으며 가로되,

"대왕은 소토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들으시고 굽어 살피옵소서. 이제 만일 소토의 배를 갈라 간이 없사오면 대왕의 환후도 고치지 못하옵고 소토만 부질없이 죽을 따름이니 다시 누구에게 간을 구하오려 하시나이까. 그때는 후회막급하실 터이오니 바라건대 대왕은 세 번 생각하옵소서."

용왕이 이 말을 듣고 또 그 기색이 태연함을 보고 심중에 심히 의아하여 가로되,

"네 말과 같을진대 무슨 간을 출입하는 표적이 있는가."

토끼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이 생각하되 이제는 내 살아날 도리 쾌히 있도다 하고 여쭈오되,

"세상의 날짐승 가운데 소토는 홀로 하체에 구멍이 셋이 있사오니 하나는 대변을 통하옵고 하나는 소변을 통하옵고 하나는 특별히 간을 출입하는 곳이오니다."

- 작자 미상, 「별주부전(鼈主簿傳)」 -

24. (가)에서 언급한 '우화소설'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동물을 의인화한 이야기로서 송사형과 쟁론형 등의 유형이 있다.
② 구어나 비속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봉건 사회의 잘못된 이념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④ 시비를 다투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대립적 가치관을 보여 주기도 한다.
⑤ 계층 간의 갈등과 해소라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한다.

25.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나)에서 서대주의 모습을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린다고 묘사한 것은 '동물의 외형'을 반영한 것이겠군.
② (나)에서 타남주가 섬으로 귀양을 가도록 결말을 구성한 것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을 강조한 것이겠군.
③ (나)에서 서대주의 자손들이 사람에게 앙갚음을 당한 것은 올바른 삶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한 것이겠군.
④ (다)에서 토끼와 용왕의 대립 구도를 설정한 것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군.
⑤ (다)에서 토끼가 하체에 간이 출입하는 특별한 구멍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기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26. (가)의 인간 세태에 대한 풍자를 바탕으로 (나), (다)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수졸'을 통해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를 풍자하고 있다.
② (나)의 '서대주'를 통해 타인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간사한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③ (나)의 '원님'을 통해 시비를 올바로 가리지 못하는 무능한 판관을 풍자하고 있다.
④ (다)의 '토끼'를 통해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간의 허황된 욕심을 풍자하고 있다.
⑤ (다)의 '용왕'을 통해 민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자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27. (나)와 (다)의 공통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건 전개 과정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드러내고 있다.
②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③ 액자식 구성을 활용하여 인물의 삶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④ 과장된 비유를 반복하여 현재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고 있다.
⑤ 현재와 과거 사건을 교차하며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고 있다.

28. (나)의 [A]와 (다)의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B]와 달리 무고를 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② [B]는 [A]와 달리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며 남들과 다른 면모를 역설하고 있다.
③ [A]는 특정 인물의 부당한 행동을, [B]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A]와 [B]는 모두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설득의 의도를 담고 있다.
⑤ [A]와 [B]는 모두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9. (다)에 나타난 '토끼'의 태도를 평가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군.
②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모색하는군.
③ 현재의 굴욕적인 상황을 참아 내며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있군.
④ 권토중래(捲土重來)의 마음으로 지난날의 실패를 만회하려 하는군.
⑤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당할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군.

〔30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요금소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전자요금징수시스템(ETC)'을 이용하면 차량이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요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렇다면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은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A]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량이 요금소의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 단말기와 첫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1기지국 간에 통신이 일어난다. 제1기지국은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거의 동시에 지역요금소 ETC 서버로 전송한다. 지역요금소 ETC 서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로 전송해서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찾아진 데이터는 다시 지역요금소 ETC 서버를 거쳐 두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2기지국을 경유하여 차량 단말기로 전송된다. 이때 이 데이터가 수신되면 차량 단말기를 통해 요금이 징수되며, 그 후 요금 징수 결과가 안내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때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시분할 방식이다. 이는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인 타임 슬롯을 차량 단말기에서 전송된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타임 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지는데,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규약으로 정해진 데이터 종류의 순서에 따라 데이터에 타임 슬롯이 할당된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경우 데이터에 할당된 타임 슬롯들에 의해 하나의 집합체가 구성되는데 이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때 타임 슬롯이 데이터에 할당되는 방식과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은 시분할 방식의 종류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 나누어 볼 수 있다.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통신 규약에 따라 타임 슬롯을 데이터 종류 각각에 지정해 놓는다.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면 그 데이

터의 종류에 지정된 타임 슬롯이 해당 데이터에 할당된다. 하지만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타임 슬롯은 빈 채로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 슬롯의 개수는 차량마다 동일하다. ㉠ 결국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은 타임 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임 슬롯이 일부 낭비된다.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타임 슬롯을 비워 두지 않고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타임 슬롯이 할당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 슬롯의 개수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타임 슬롯이 해당 종류의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 ㉡ 결국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타임 슬롯이 낭비되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통신 기술의 발전과 교통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거나 통신 규약이 바뀌기도 하는 등 전자요금 징수시스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30.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분에게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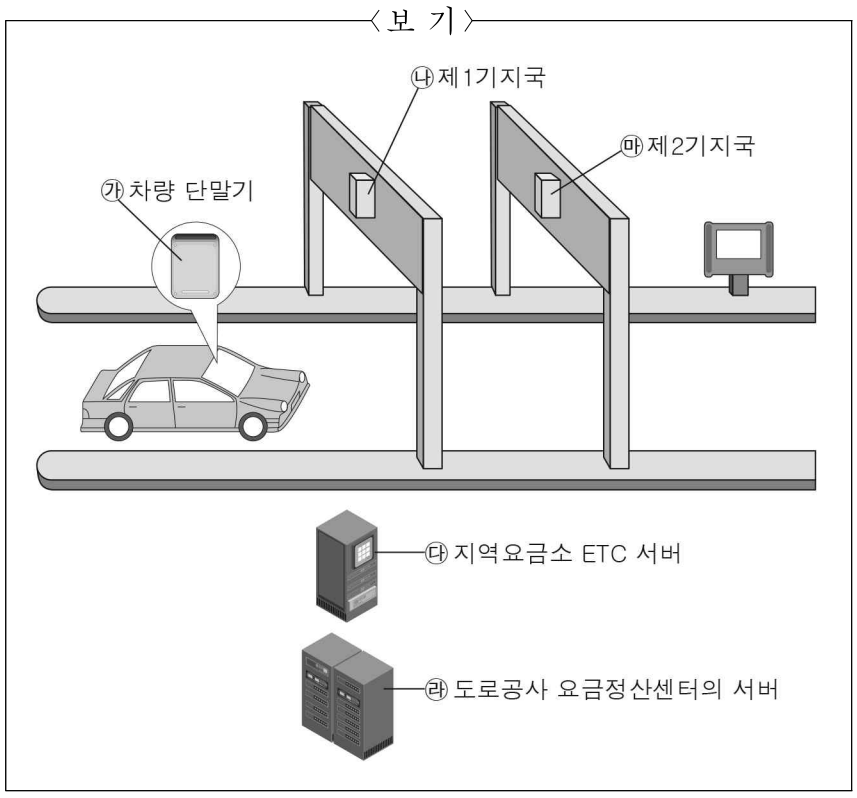
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삶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②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 글을 읽으려는
③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④ 과학적 지식을 쌓기 위해 현상과 관련된 과학 문제를 다룬 글을 읽으려는
⑤ 학문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다룬 글을 읽으려는

3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면 요금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데이터 전송이 무선으로 이루어진다.
③ 시분할 방식에서 타임 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
④ 타임 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들에 의해 구성된 집합체이다.
⑤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

32. 윗글의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에서 ㉯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② ㉯에서 ㉱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③ ㉰에서 ㉮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된다.
④ ㉱에서 ㉲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되고, ㉱에서 ㉰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된다.
⑤ ㉲에서 ㉱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되고, ㉲에서 ㉮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33. 윗글을 읽은 학생이 ㉠과 ㉡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은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의 효율성은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

	Ⓐ	Ⓑ	Ⓒ
①	오류 발생 가능성	낮고	높다
②	오류 발생 가능성	높고	낮다
③	데이터 손실 가능성	높고	낮다
④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확성	낮고	높다
⑤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확성	높고	낮다

34. <보기>는 □□ 요금소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설정된 내용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황〕

□□ 요금소에 전자요금징수시스템으로만 운영하는 하나의 차로를 1번 차량과 2번 차량이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순서대로 지나갔다.

〔데이터의 전송 유무〕

데이터의 종류 / 차량 구분(시분할 방식)	Ⅰ-1	Ⅰ-2	Ⅰ-3	Ⅰ-4
1번 차량 (동기식)	유	무	유	유
2번 차량 (비동기식)	유	유	유	무

※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내용

Ⅰ. 데이터 종류의 순서	Ⅰ-1.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함 Ⅰ-2. 후불 카드를 사용함 Ⅰ-3.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함 Ⅰ-4. 요금 감면 대상임
Ⅱ. 데이터의 전송 유무	유: 데이터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과 일치함
	무: 데이터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과 불일치함

〔타임 슬롯(TS)의 흐름〕

	TS_1	TS_2	TS_3	TS_4	TS_5	TS_6	TS_7	TS_8	

(단, 두 차량 사이의 타임 슬롯은 존재하지 않고 1번 차량의 타임 슬롯은 TS_1부터 시작함.)

① TS2는 비워지는 타임 슬롯으로 이는 1번 차량이 후불 카드를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겠군.

② TS3과 TS7은 모두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 슬롯이겠군.

③ TS4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고, TS8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겠군.

④ TS1을 통해서는 1번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를, TS7을 통해서는 2번 차량의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군.

⑤ TS5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것을, TS6에는 후불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성명		수험 번호									

〔35 ~ 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동디자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동디자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대답을 듣고) 많지 않으시네요. 행동디자인은 환경이나 조건을 디자인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자, 먼저 화면을 보시죠. 이 비누 속에는 장난감이 들어 있습니다. 무척 신기하시죠? 이 비누를 본 아이들은 호기심을 느껴 비누로 자주 손을 씻게 되었고, 덕분에 질병 발생률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행동디자인의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행동디자인은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트리거 때문입니다. 트리거란 일반적으로 유인, 계기를 뜻하는데요. 행동디자인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장난감이 들어 있는 비누처럼 감각을 통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물리적 트리거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 즉 물리적 트리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을 심리적 트리거라고 합니다. 행동디자인은 물리적 트리거와 심리적 트리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 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멋진 물리적 트리거라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 후에 심리적 트리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디자인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의 행동을 거부감 없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상을 보여준 후) 횡단보도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노란 발자국이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발자국 그림에 맞추어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간단한 물리적 트리거로도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 때에는 공통점이 있는 두 물건을 결합하거나, 직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기존의 디자인을 조금 변경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물리적 트리거에 익숙해져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물리적 트리거에 경쟁이나 게임 같은 요소를 더하여 행동디자인의 효과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발표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행동디자인이 적용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디자인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35.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③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청중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⑤ 질문의 방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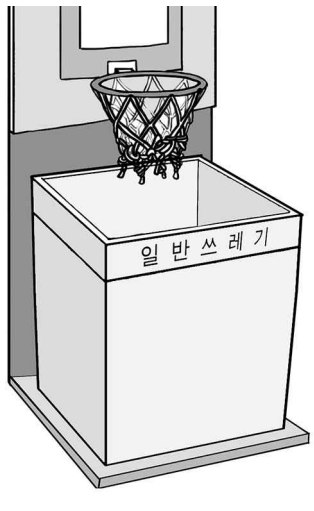
36.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의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동디자인에서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② 행동디자인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③ 행동디자인에서는 무엇을 디자인하여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나요?
④ 물리적 트리거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나요?
⑤ 물리적 트리거가 심리적 트리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예로는 무엇이 있나요?

37. 위 발표를 들은 청중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수는 학생들이 농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넣도록 그림과 같은 쓰레기통을 만들었다. 처음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때에는 설치 의도대로 교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교실 바닥에 다시 쓰레기가 버려졌고 영수는 고민에 빠졌다.



① 영수는 물건을 넣는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농구 골대와 쓰레기통을 결합시킨 것이겠군.
② 영수는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기 위해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한 것이겠군.
③ 교실 바닥에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영수의 심리적 트리거가 물리적 트리거를 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시간이 지나자 교실 바닥에 다시 쓰레기가 버려진 것은 학생들이 물리적 트리거에 익숙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군.
⑤ 영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쓰레기통을 하나 더 설치하여 게임을 통해 경쟁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군.

〔38 ~ 41〕 (가)는 독서 동아리에서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슬기'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ㅇ토의 상황
독서 동아리에서는 '고전과 삶'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함께 읽을 고전으로 『어린 왕자』를 선정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

지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 우선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슬기가 먼저 이야기해 보자.

[A]
슬기: 『어린 왕자』 하면 여우가 나오는 장면을 가장 많이 얘기하잖아. 나도 그렇긴 했는데, 어린 왕자가 여섯 개의 별에서 만난 사람들도 기억에 남았어.
준호: 어? 나도 그런데. 난 그중에서도 가로등 켜는 사람이 제일 인상적이었어.
슬기: 나랑 비슷하네. 난 가로등 켜는 사람이랑 사업가가 기억에 남아.

[B]
지혜: 그럼 둘 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인상적이었다는 거구나.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
슬기: 가로등 켜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성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준호: 나도 그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명령 때문에 한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난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어.
슬기: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C]
지혜: 인상 깊었던 이유는 서로 조금 다르네. 슬기는 가로등 켜는 사람의 성실한 면에, 준호는 수동적인 면에 더 주목했구나. 그러면 가로등 켜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어떤 면을 돌아보게 하는지 말해 볼까?
슬기: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많아.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
준호: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중요성도 생각해 보게 됐어.
슬기: 네 말을 듣고 보니 나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나)

삶이라는 길은 걷게 되는 것일까, 걸어가는 것일까?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동안 나는 학생으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독서 토의 후 이런 나의 삶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어릴 때 『어린 왕자』는 동화책 같은 느낌이었고 여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처음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는 점 때문이었지만, 토의를 하고 나서 그의 수동적인 면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스스로 찾지 않았던 것이다. 그 모습에서 나는 문득 내 얼굴을 발견했다.

나는 올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했는데 주어진 역할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스스로 학급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의무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평소 나는 여러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왔다. 하지만 고민을 터놓을 만한 진정한 친구는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결국 이것도 능동적이지 못했던 나의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다가가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나의 마음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친구를 위해 나의 마음과 노력을 다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38. (가)에 나타난 '지혜'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할 토의 주제를 안내하고 있다.
② 토의 진행을 위해 발언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하고 있다.
③ 토의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다.
④ 토의 참여자들의 입장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⑤ 토의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

39.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준호'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② [A]: '슬기'는 상대방의 배경지식을 환기하며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③ [B]: '슬기'는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④ [B]: '준호'는 상대방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C]: '슬기'는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40. 다음은 (가)의 활동을 수행한 후, (나)를 작성하기 위한 '슬기'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문 계획〉

*** 1문단**
ㅇ 독서 토의가 최근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을 언급해야겠어. ····· ①

*** 2문단**
ㅇ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와 다시 읽었을 때의 차이점을 드러내야겠어. ····· ②

*** 3문단**
ㅇ 학급 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에 대한 성찰의 내용을 언급해야겠어. ····· ③

*** 4문단**
ㅇ 나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한 내용을 담아야겠어. ····· ④
ㅇ 책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깨달은 바를 드러내야겠어. ····· ⑤

41. <조건>에 따라 (나)의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나)에 제시된 핵심적인 성찰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① 나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어린 왕자』, 친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다
② 『어린 왕자』를 읽고 성찰한 나의 삶, 주체적인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다
③ 선물처럼 다가온『어린 왕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순수한 시절과 마주하다
④『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다, 배의 키를 쥔 선장같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고
⑤『어린 왕자』를 통해서 알게 된 함께 사는 세상,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는 삶

〔42~45〕 (가)는 학생의 발표이고 (나)는 발표를 들은 학생이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제가 소개할 좌우명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저에게 이 명언이 특별한 이유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최근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작 박물관'과, 실패를 대하는 자세를 담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패 극복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 사례는 널리 알리지만 실패는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실패한 제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실패작 박물관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준 후) 정말 많은 전시품이 있지요? 어떤 전시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그렇군요. 아쉽게도 이 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원래 명칭은 신제품 작업소였습니다. 설립자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신제품을 모아 이곳을 세웠는데, 모은 제품의 80% 이상이 시장에서 실패해 버린 겁니다. 결국 이곳은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달리 실패작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10만여 점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그 실패 이야기에 주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과의 인터뷰입니다. (영상을 보여 준 후) 화면에서 보셨듯이 관람객들은 단순히 실패작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물 소개 자료에 실려 있는 실패 이야기를 읽고 새로운 도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패작 박물관은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제품들을 통해 실패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 실패작을 숨기지 않고 전시하여 실패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이를 통해 우리도 실패를 창피하게 생각하여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패 극복의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책에서 찾은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기 비난과 같은 감정적 판단을 넣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

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패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인정이 필요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과정 속에서 나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지 신중하고 냉철하게 실패의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 숨어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

오늘 친구의 발표를 듣고 실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특히 실패의 경험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것을 나의 경험에 적용해 보았다.

1학기 때 나는 친한 친구들과 '책사랑' 자율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우리는 읽을 책의 목록을 정한 후 각자 ㉠ 읽고, 토론하기로 했다. ㉡ 하지만 활동 일지를 바탕으로 학기말에 최종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처음에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갈수록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한 달에 두 번으로 계획했던 토론 모임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활동보고서 작성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동아리 부장으로서 내가 한 일을 돌아보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모임 장소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노력했고, 토론 모임에 자주 빠진 친구들을 찾아가 끝까지 함께하자고 설득했다. ㉢ 토론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좋지 못했을까? 친구들의 관심을 고려하기보다는 유명한 책 위주로 목록을 선정하다보니 흥미를 갖고 책을 끝까지 읽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바뀐 모임 장소와 시간을 제때에 ㉣ 알려서 공지해 주지 못해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고 나니 내년에는 자율 동아리를 잘 ㉤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내 마음 속 실패작 박물관에는 더 많은 전시물이 생기겠지만, 그때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42. (가)의 발표자가 사용한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질문을 던지고 그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③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④ 도입부에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⑤ 마지막 부분에 요약된 내용을 나열하여 청중이 핵심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3. (가)를 들은 청중의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패작 박물관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② 실패작 박물관의 원래 명칭은 무엇인가요?
③ 실패작 박물관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④ 실패작 박물관에는 얼마나 많은 제품이 전시되어 있나요?
⑤ 실패작 박물관의 실패작들은 지금도 시중에서 볼 수 있나요?

44. 다음은 (가)를 들은 학생이 (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발표자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라고 했지. 나도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 분석하여 제시해야겠어. ····· ㉮
- 발표자는 실패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했지. 나도 자율 동아리를 잘 운영하지 못했던 경험을 자세하게 언급해야겠어. ····· ㉯
- 발표자는 실패를 정면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나도 실패를 숨기려고 했던 나의 인식이 전환된 것에 대해 언급해야겠어. ····· ㉰
- 발표자는 실패 상황을 재해석할 때 자기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나는 동아리 부장으로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부분을 제시해야겠어. ····· ㉱
- 발표자는 실패의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지. 나도 실패의 경험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언급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나)의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책을'을 첨가한다.
②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로 바꾼다.
③ ㉢은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④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알려서'를 삭제한다.
⑤ ㉤은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운영될'로 바꾼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성명		수험 번호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를 말하는데, 분류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합성 명사, 합성 부사, 합성 동사 등과 같이 합성어의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꽃'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곧잘'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힘쓰다'는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이다.

둘째,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와 같이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등 합성어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앞뒤, 오르내리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속 합성어는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수식하는 구조로,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어 있는 합성어이다. '돌다리, 산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융합 합성어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그분께 춘추(春秋)를 여쭈어 보았다.'에서 '춘추(春秋)'는 '봄'과 '가을'이라는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A] 셋째, 어근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산나물',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실룩샐룩',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그만두다', 연결어미에 의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한 '뛰어가다' 등과 같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을 따른 합성어를 말한다. 반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접칼', 연결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한 '굶주리다', 부사와 명사가 결합한 '척척박사' 등과 같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를 말한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농부들이 ㉠ 피땀으로 일군 ㉡ 논밭에 가을이 왔다.
◦ 이 ㉢ 봄비가 그치고 여름이 오면, 포도가 ㉣ 송이송이 영글어 갈 것이다.

① ㉠은 두 어근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노력과 수고'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② ㉢은 합성 명사로,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어 있다.
③ ㉠과 ㉣은 모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이며, 두 합성어의 품사는 동일하다.
④ ㉡과 ㉢은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 관계가 다른 합성어이지만, 두 합성의 품사는 동일하다.
⑤ ㉡과 ㉣은 모두 결합한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합성어이지만, 두 합성어의 품사는 다르다.

36. 다음은 [A]와 관련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결합 방식	구분	다른 예
또다시 → 또 + 다시	㉠	통사적 합성어	㉡
첫사랑 → 첫 + 사랑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	㉢	왼쪽
붙잡다 → 붙- + 잡다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	㉣	㉤

① ㉠에는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 들어가겠군.
② ㉡에는 '하루빨리'를 넣을 수 있겠군.
③ ㉢에는 '통사적 합성어'가 들어가겠군.
④ ㉣에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들어가겠군.
⑤ ㉤에는 '굳세다'를 넣을 수 있겠군.

37. <보기>의 ㉠~㉣에서 설명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긴다.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 두 개의 음운 중 한 음운이 없어진다.
㉣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뀐다.

① ㉠: 설날[설 : 랄], 한여름[한녀름]
② ㉢: 놓아[노아], 없을[업 : 쓸]
③ ㉣: 앉히다[안치다], 끓이다[끄리다]
④ ㉠ + ㉡: 구급약[구 : 금냑], 물엿[물렫]
⑤ ㉡ + ㉢: 읊조리다[읍쪼리다], 꿋꿋하다[꾿꾸타다]

38. 다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동문	사동문
㉠	철수가 집에 가다.	내가 철수를 집에 가게 하다.
㉡	동생이 밥을 먹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 (*'는 비문임을 나타냄.)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기다.

① ㉠의 주동문은 ㉡과 달리 사동 접미사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없다.
② ㉢의 사동문에서 사동 접미사 대신 '-게 하다'를 활용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③ ㉠과 ㉡은 모두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뀐 경우이다.
④ ㉠과 ㉡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사동문에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
⑤ ㉠, ㉡과 달리 ㉢은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이다.

39. <보기 1>은 중세 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고, <보기 2>는 현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보기 2>를 참고하여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 보살(菩薩)이 ㉠ 어느 나라해 ᄂᆞ리시게 ᄒᆞ려뇨
〔현대 국어〕 보살이 어느 나라에 내리시도록 하려는가?

〔중세 국어〕 ㉡ 어늬 구더 병불쇄(兵不碎)ᄒᆞ리잇고
〔현대 국어〕 어느 것이 굳어 군대가 부수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세 국어〕 져믄 아ᄒᆡ ㉢ 어느 듣ᄌᆞᄫᆞ리잇고
〔현대 국어〕 어린 아이가 어찌 듣겠습니까?

〔중세 국어〕 미혹(迷惑) ㉣ 어느 플리
〔현대 국어〕 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겠는가?

〔중세 국어〕 이 두 말올 ㉤ 어늘 종(從)ᄒᆞ시려뇨
〔현대 국어〕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보기 2〉

어느 01「관형사」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어느 02「대명사」『옛말』
어느 것.

어느 03「부사」『옛말』
'어찌'의 옛말.

①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은 <보기 2>의 '어느 01'과 품사가 같다고 할 수 있겠군.
② ㉡은 <보기 2>의 '어느 02'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은 <보기 2>의 '어느 03'으로 쓰여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한다고 할 수 있겠군.
④ <보기 2>의 '어느 01'과 '어느 03'을 참고해 보니 ㉣과 '어느 01'은 품사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군.
⑤ ㉤에 사용된 '어느'는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인 <보기 2>의 '어느 0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40 ~ 42〕 다음은 영희가 블로그에 '공공미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글을 쓴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곳곳에 미술 작품들이 ㉠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시민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설치한 미술 작품들을 '공공미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공미술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훼손된 채로 방치되는 작품들이 많다. ㉡ 그래서 공공미술 작품이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공공미술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작품의 유지와 보수,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각종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작품의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작품을 설치할 것인가를 설치 주체들의 판단에만 맡기다 보니, 작품의 예술성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한 채 ㉣ 설치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특정 분야의 작품들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미술의 유지와 보수, 처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인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작품을 관리할 주체를 ㉤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작품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작품을 설치할 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취지에 걸맞은 예술성을 확보하고,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공공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치된 작품에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작품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40. <보기>에서 영희의 블로그 글에 드러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보 기〉

ㄱ.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ㄴ.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ㄷ.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며 글의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ㄹ.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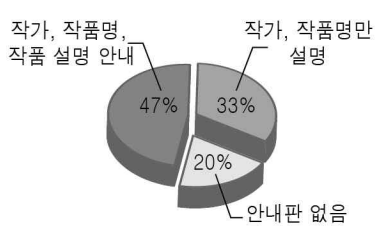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영희의 블로그 글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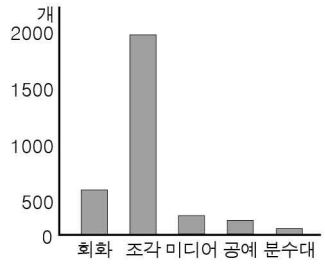
〈보 기〉

(가) 통계자료

1. 공공미술 안내판 실태



2. 분야별 공공미술 작품 설치 현황



(나) 신문 기사

○○시에서 실시한 관내 공공미술 작품 점검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작품이 35.4%, 철거가 시급한 작품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품 안내판의 내용이 난해하여 시민들이 작품 감상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공공미술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미술 관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작품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 □□ 시 대표 인터뷰

우리 시에서는 예술가와 주민들의 협업을 통해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한 결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작품들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작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작품의 수명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외국의 '30년 일몰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① (가)-2를 활용하여 공공미술 작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② (나)를 활용하여 훼손된 채로 방치된 작품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③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공공미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원인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④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작품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해 관리 주체를 통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사후 관리가 부실한 공공미술 작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42.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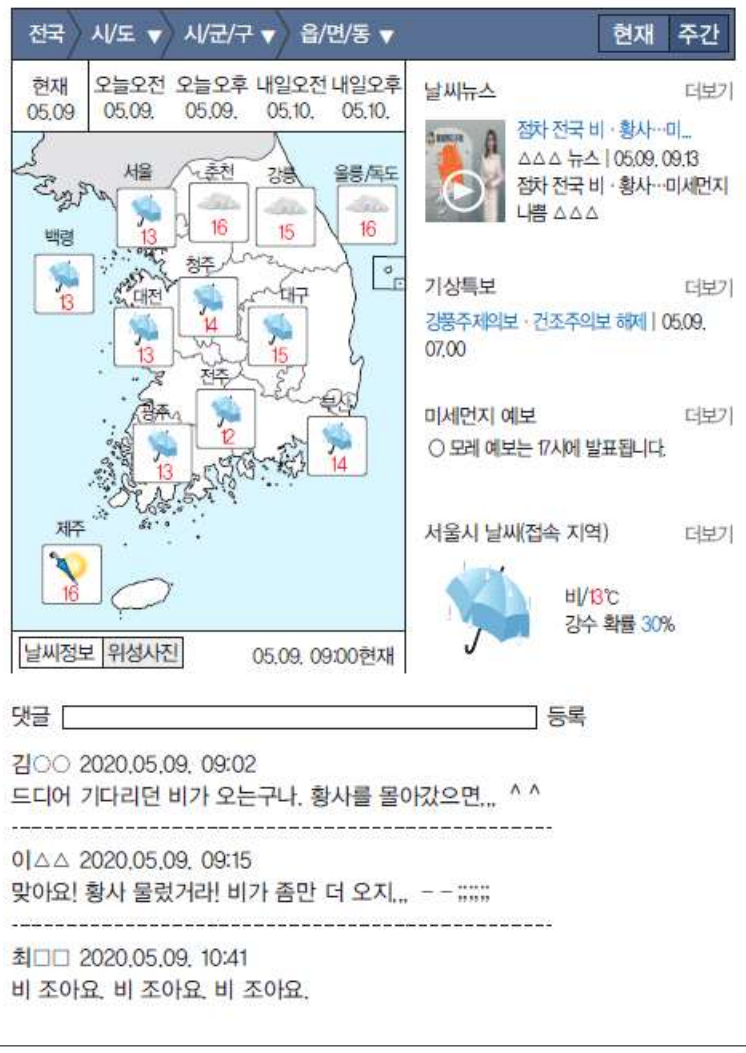
①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설치되어'로 고쳐야겠어.
② ㉡: 문장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리고'로 고쳐야겠어.
③ ㉢: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이므로 '더우기'로 고쳐야겠어.
④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설치가 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으로 고쳐야겠어.
⑤ ㉤: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므로 '하나로'를 삭제해야겠어.

43.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라디오 방송 날씨 정보

"지난 주말 황사와 미세 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연일 이어지는 가뭄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도 많을 텐데요, 가뭄은 8일 밤 전라남도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조금이나마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비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10일 새벽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저기압의 느린 이동 속도로 인해 경기 북부와 강원도, 남부 지방에서는 낮까지도 비가 조금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3분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 인터넷 사이트 날씨 정보



① (가)는 청취자가 날씨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군.
② (나)는 날씨 정보에 대해 사람들끼리 상호 작용하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군.
③ (가)는 (나)에 비해 제시된 정보를 복제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용이하겠군.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개인에 대한 맞춤식 정보가 제공될 수 있군.
⑤ (가)는 음성 언어만으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나)는 문자, 영상, 음성 등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전달되는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언어문화가 언어 규범의 파괴나 언어 윤리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언어 규범 파괴는 주로 통신 언어에서 음운 표기나 문법 현상의 파괴, 비속어나 통신 은어의 사용 등을 뜻하며, 언어 윤리 파괴는 무례한 표현, 욕설 표현, 저주 표현, 모욕 표현, 음란 표현, 과장 표현 등을 뜻한다. 매체 언어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는 언어 사용의 목적과 맥락, 언어 사용에 참여하는 수용자와 생산자 간의 관계 등에 따라 적합한 언어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예를 들어 통신 언어에서 이모티콘은 상황 맥락을 공유하지 못하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결여된 맥락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비언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감정을 전달하는 유용한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공적인 소통이나 정보 전달을 지향하는 소통 등에서는 부적절한 사용이 될 수 있다.

(나)

〈학급 SNS(누리 소통망)를 통한 친구 간의 대화〉

44. (가)를 참고하여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쥔공', '갑분싸'와 같은 줄임말을 사용하여 언어 규범을 파괴하고 있다.
②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언어 윤리를 파괴하는 무례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③ '자죄', '느'와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며 언어 규범을 훼손하고 있다.
④ 학급 공동체의 공적인 소통 공간에서 학급 구성원을 모욕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⑤ 이모티콘을 맥락과 관계없이 사용하여 대화의 정보 전달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45. (가), (나)를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는 물음을 만든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활 속에서 언어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표기를 하지 않았는가
② 통신 언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무례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③ 언어 사용 목적과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④ 인터넷 대화 중 맥락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⑤ SNS(누리 소통망)에서 필수 문장 성분을 빠뜨리지 않고 완결된 문장을 사용하였는가

2022학년도 수능대비 Replay 문제 2회 정답지

1	②	13	⑤	25	②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2	①	14	⑤	26	②	35	④	35	③
3	①	15	③	27	①	36	⑤	36	②
4	③	16	③	28	②	37	③	37	④
5	③	17	⑤	29	①	38	⑤	38	③
6	②	18	①	30	⑤	39	④	39	⑤
7	①	19	①	31	④	40	④	40	②
8	⑤	20	①	32	⑤	41	④	41	④
9	②	21	⑤	33	④	42	⑤	42	③
10	④	22	③	34	③	43	①	43	③
11	①	23	①			44	③	44	⑤
12	⑤	24	⑤			45	⑤	45	⑤